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환경 실태 및 욕구조사

2014년 9월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차례

I. 연구목적 _ 11

II. 연구방법 _ 15

III. 연구결과 _ 21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_ 21
2. 건강환경 _ 23
3. 안전과 보호 환경 _ 32
4. 교육환경 _ 46
5. 놀이와 여가환경 _ 57
6. 사회참여와 정책 _ 67
7.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_ 78

IV. 결론- 정책제언 _ 89

설문지- 청소년용 _ 97

설문지- 학부모용 _ 105

표차례

<표 1>	청소년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_ 21
<표 2>	학부모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_ 22
<표 3>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위급할 때 응급처치	_ 23
<표 4>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위급할 때 응급처치	_ 24
<표 5>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성교육 및 상담	_ 25
<표 6>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성교육 및 상담	_ 26
<표 7>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위험행동	_ 26
<표 8>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위험행동	_ 27
<표 9>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정서,행동문제	_ 28
<표 10>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정서,행동문제	_ 28
<표 11>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유해매체 관련	_ 29
<표 12>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유해매체 관련	_ 30
<표 13>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_ 30
<표 14>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_ 31
<표 15>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쓰레기더미,유해물질	_ 33
<표 16>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쓰레기더미,유해물질	_ 33
<표 17>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공중화장실	_ 34
<표 18>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공중화장실	_ 35
<표 19>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각종 편의시설	_ 35
<표 20>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각종 편의시설	_ 36
<표 21>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대중교통	_ 37
<표 22>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대중교통	_ 37
<표 23>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집에서 학교 가는 길	_ 38

<표 24>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집에서 학교 가는 길	_ 39
<표 25>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자전거도로	_ 39
<표 26>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자전거도로	_ 40
<표 27>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야간 조명시설	_ 41
<표 28>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야간 조명시설	_ 41
<표 29>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성인용 광고	_ 42
<표 30>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성인용 광고	_ 43
<표 31>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술,담배,본드	_ 43
<표 32>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술,담배,본드	_ 44
<표 33>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_ 44
<표 34>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_ 45
<표 35>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직업체험 프로그램	_ 46
<표 36>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직업체험 프로그램	_ 47
<표 37>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_ 48
<표 38>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_ 48
<표 39>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방과 후 학교시설	_ 49
<표 40>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방과 후 학교시설	_ 50
<표 41>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놀이활동, 공연	_ 50
<표 42>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놀이활동, 공연	_ 51
<표 43>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예술단체, 회사 연계나눔	_ 52
<표 44>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예술단체, 회사 연계나눔	_ 52
<표 45>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교육자원	_ 53
<표 46>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교육자원	_ 54

<표 47>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도서관이용	_ 54
<표 48>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도서관이용	_ 55
<표 49>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_ 55
<표 50>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_ 56
<표 51>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자기계발, 취미생활	_ 58
<표 52>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자기계발, 취미생활	_ 58
<표 53>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공연장소대여	_ 59
<표 54>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공연장소대여	_ 60
<표 55>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프로그램	_ 60
<표 56>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프로그램	_ 61
<표 57>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놀이 시설	_ 62
<표 58>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놀이 시설	_ 62
<표 59>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놀이장소	_ 63
<표 60>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놀이장소	_ 64
<표 61>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자연속 다양한 놀이	_ 64
<표 62>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자연속 다양한 놀이	_ 65
<표 63>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다양한 교류활동	_ 66
<표 64>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다양한 교류활동	_ 66
<표 65>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_ 67
<표 66>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_ 67
<표 67>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지역사회 개최 축제	_ 68
<표 68>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지역사회 개최 축제	_ 69
<표 69>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자원봉사활동	_ 70

<표 70>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자원봉사활동	_ 70
<표 71>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정보정책내용	_ 71
<표 72>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정보정책내용	_ 72
<표 73>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사회문제 인터넷활용	_ 72
<표 74>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사회문제 인터넷활용	_ 73
<표 75>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시장, 구청장의 어린이, 청소년복지관심	_ 74
<표 76>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시장, 구청장의 어린이, 청소년복지관심	_ 74
<표 77>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어린이, 청소년 무차별 친절	_ 75
<표 78>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어린이, 청소년 무차별 친절	_ 76
<표 79>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_ 76
<표 80>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_ 77
<표 81>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_ 78
<표 82>	학부모가 인식하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_ 79
<표 83>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방자치 조례제정	_ 80
<표 84>	학부모가 인식하는 지방자치 조례제정	_ 80
<표 85>	청소년이 인식하는 서구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	_ 81
<표 86>	학부모가 인식하는 서구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	_ 82
<표 87>	청소년이 인식하는 원당 숲 어린이, 청소년	_ 82
<표 88>	학부모가 인식하는 원당 숲 어린이, 청소년	_ 83
<표 89>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_ 84
<표 90>	학부모가 인식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_ 84
<표 91>	청소년이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_ 85
<표 92>	학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_ 85

-
- <표 93>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_ 90
 - <표 94>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_ 91
 - <표 95>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_ 92
 - <표 96>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_ 93
 - <표 97>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_ 94
 - <표 98> 청소년이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_ 95

I. 연구목적

I. 연구목적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운동은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UN회의인‘해비타트 II’에서 모든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유니세프에 의해‘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CFC)’구축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어린이 ·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와‘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그들의 필요와 견해가 도시행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도 장기계획을 세우고‘어린이 ·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니세프 CFC 취지를 살려 지방정부에서 어린이·청소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를 도시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CFC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지역정부의 시스템을 말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 그리고 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반영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CFC의 원칙과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표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민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과도한 노동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연구자료는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옹호자와 유관기관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굿거버넌스의 지표를 만드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II. 연구방법

II. 연구방법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는 어린이·청소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었다.

이 설문지는 광주광역시 소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어린이청소년과 그 학부모를 조사하였다.

청소년용 설문지는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임의로 추출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받았다. 또한, 일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부모용 설문지를 제공하고 자기응답식으로 작성한 것을 되돌려 받았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건강환경, 안전과 보호환경,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환경, 사회참여와 정책,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다.

청소년용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남자, 여자), 연령(만 나이),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거주지역(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을 표기하게 하였다.

청소년용 설문지에서 건강환경, 안전과 보호환경,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환경, 사회참여와 정책,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건강환경’은 5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험행동 예방(흡연, 약물, 음주 등의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문제(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자살 등)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해매체관련 중독을 예방(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로 파악하였다.

‘안전과 보호 환경’은 9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악취, 공기오염, 소음 등 건강을 해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안전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공공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 어린이·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 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구조물(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안전하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집 주변에 성인용 광고 전단지가 길거리에 널려 있지 않으며 간판에 야한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지 않다, 어린이·청소년이 술, 담배, 본드, 가스 등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파악하였다.

‘교육환경’은 7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방과후 학교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놀이활동·공연·참여 활동을 어린이·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경찰, 소방서, 병원, 교통공단, 예술단체, 회사 등)와 연계된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을 위한 자원(책, 학습CD, 교복 등)을 빌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악했다.

‘놀이와 여가환경’은 7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이 문화·예술 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 준다,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놀이 공간(놀이터, 공원 등)이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놀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놀이터나 공원 이외에도 집 근처의 다른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나무, 식물, 꽃, 호수 등 자연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파악했다.

‘사회참여와 정책’은 6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

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에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어린이·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구청,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어린이·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파악했다.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은 5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꿈의 공원¹⁾」 활용공간으로 적절하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원당숲은 어린이·청소년 「모험놀이터²⁾」의 공간으로 적절하다, 동 단위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파악했다(청소년용 설문지는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학부모용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남자, 여자), 연령(만 나이), 거주지역(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을 표기하게 하였다. 학부모는 설문지를 가져온 학생이외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학교와 학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부모용 설문지에도 건강환경, 안전과 보호환경,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환경, 사회참여와 정책,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다. 청소년용과 같은 질문에 대해 학부모는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가급적 같은 질문을 부과하였다. [학부모용 설문지는 이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1) [꿈의 공원]은 일본 가와사키 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거점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꿈의 공원은 ‘어린이·청소년회의’, ‘모험놀이터’, ‘자유공간’이라는 3가지 중심 요소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2) [모험놀이터]는 나무·줄·흙·물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마음껏 체력단련과 친화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Ⅲ. 연구결과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청소년 응답자 706명의 성별은 남자가 345명으로 전체의 48.9%이고, 여자는 361명으로 전체의 51.1%이다. 학교는 초등학교가 40.1%, 중학교가 29.0%, 고등학교가 30.9%이다. 거주지역은 동구가 4.3%, 서구가 18.0%, 남구가 18.4%, 북구가 29.3%, 광산구가 30.0%로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북구와 광산구에 사는 학생이 많고, 동구의 학생이 적은 편이다.

<표-1> 청소년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단위:%, 수)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자	345	48.9
	여자	361	51.1
학교	초등학교	283	40.1
	중학교	205	29.0
	고등학교	218	30.9
거주 지역	동구	30	4.3
	서구	127	18.0
	남구	130	18.4
	북구	207	29.3
	광산구	212	30.0
합계(실수)		706	100.0

학부모 응답자 104명의 성별은 남자가 19명으로 전체의 18.3%이고, 여자는 85명으로 전체의 81.7%이다. 거주지역은 동구가 1.0%, 서구가 31.0%, 남구가 18.4%, 북구가 13.6%, 광산구가

36.9%로 인구가 광산구와 서구에 사는 학부모가 많고, 동구의 학부모가 적은 편이다.

<표-2> 학부모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단위:%, 수)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자	19	18,3
	여자	85	81,7
거주 지역	동구	1	1,0
	서구	32	31,0
	남구	19	18,4
	북구	14	13,6
	광산구	38	36,9
합계(실수)		104	100,0

2. 건강환경

‘건강환경’은 5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험행동 예방(흡연, 약물, 음주 등의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문제(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자살 등)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해매체관련 중독을 예방(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로 파악하였다.

- 1)“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에 53.7%가 그렇다, 24.2%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77.9%가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3>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 위급할 때 응급처치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3.5	22.3	51.0	23.2	100(345)
	여자	3.0	15.5	56.2	25.2	100(361)
학교	초등학교	1.4	12.7	47.7	38.2	100(283)
	중학교	2.9	23.9	61.0	12.2	100(205)
	고등학교	6.0	22.0	54.6	17.4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0.0	23.3	53.3	13.3	100(30)
	서구	3.1	20.5	56.7	19.7	100(127)
	남구	3.1	18.5	60.8	17.7	100(130)
	북구	3.4	15.5	57.0	24.2	100(207)
	광산구	2.4	20.8	44.3	32.5	100(212)
합계 (실수)		3.3 (23)	18.8 (133)	53.7 (379)	24.2 (171)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4.0%가 그렇다, 16.0%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0.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77.9%보다 17.9%포인트 낮게 평가하였고, 동구지역 청소년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학부모의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주민의 평가가 타지역에 비해 65.6%로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표-4>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 위급할 때 응급처치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63.6	9.1	27.3	100(19)
	여자	3.5	35.3	45.9	15.3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3.1	62.5	15.6	18.8	100(32)
	남구	0.0	26.3	68.4	5.3	100(19)
	북구	7.1	7.1	64.3	21.4	100(14)
	광산구	2.6	28.9	52.6	15.8	100(38)
합계 (실수)		3.0 (3)	37.0 (38)	44.0 (46)	16.0 (17)	100 (104)

2)“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에 41.8%가 그렇다, 9.6%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1.4%가 성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 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5>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 성교육 및 상담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8.4	41.2	39.4	11.0	100(345)
	여자	11.9	35.6	44.2	8.3	100(360)
학교	초등학교	10.6	27.9	46.3	15.2	100(283)
	중학교	6.3	42.4	43.9	7.3	100(205)
	고등학교	13.4	47.9	34.1	4.6	100(217)
거주 지역	동구	10.0	40.0	36.7	13.3	100(30)
	서구	6.3	37.8	46.5	9.4	100(127)
	남구	10.0	39.2	43.1	7.7	100(130)
	북구	15.9	40.6	37.7	5.8	100(207)
	광산구	7.1	35.5	43.1	14.2	100(211)
합계 (실수)		10.2 (72)	38.3 (270)	41.8 (295)	9.6 (68)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4.6%가 그렇다, 6.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1.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1.4%보다 10.1%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북구,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6>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 성교육 및 상담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5.8	47.4	31.6	5.3	100(19)
	여자	15.3	42.4	35.3	7.1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18.8	59.4	18.8	3.1	100(32)
	남구	0.0	15.8	78.9	5.3	100(19)
	북구	14.3	50.0	21.4	14.3	100(14)
	광산구	21.1	39.5	31.6	7.9	100(38)
합계 (실수)		15.4 (16)	43.3 (45)	34.6 (36)	6.7 (7)	100 (104)

- 3)“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험행동 예방(흡연, 약물, 음주 등의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에 43.2%가 그렇다, 8.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1.7%가 위험행동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북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 위험행동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2	38.8	41.4	9.6	100(343)
	여자	11.6	36.0	44.9	7.5	100(361)
학교	초등학교	11.7	30.1	46.5	11.7	100(282)
	중학교	7.8	37.7	46.6	7.8	100(204)
	고등학교	12.8	46.3	35.8	5.0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3.3	40.0	40.0	6.7	100(30)
	서구	5.6	40.5	47.6	6.3	100(126)
	남구	10.8	36.9	45.4	6.9	100(130)
	북구	18.0	39.3	35.9	6.8	100(206)
	광산구	7.1	33.5	46.7	12.7	100(212)
합계 (실수)		10.9 (77)	37.4 (264)	43.2 (305)	8.5 (60)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1.7%가 그렇다, 2.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4.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1.7%보다 17.1%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북구,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8>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 위험행동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5.8	52.6	26.3	5.3	100(19)
	여자	9.4	55.3	32.9	2.4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9.4	81.3	9.4	0.0	100(32)
	남구	0.0	31.6	68.4	0.0	100(19)
	북구	7.1	50.0	42.9	0.0	100(14)
	광산구	18.4	44.7	28.9	7.9	100(38)
합계(실수)		10.6 (11)	54.8 (57)	31.7 (33)	2.9 (3)	100 (104)

- 4)“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문제(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자살 등)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에 43.1%가 그렇다, 9.0%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2.1%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는 동구와 북구보다는 서구, 남구, 광산구에 사는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9>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 정서, 행동문제

(단위: %,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9.3	40.9	40.0	9.9	100(345)
	여자	12.0	33.8	46.1	8.1	100(358)
학교	초등학교	11.0	25.9	49.3	13.8	100(282)
	중학교	5.9	43.3	43.8	6.9	100(203)
	고등학교	14.7	46.3	34.4	4.6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0.3	48.3	34.5	6.9	100(29)
	서구	7.1	40.9	42.5	9.4	100(127)
	남구	9.2	33.8	47.7	9.2	100(130)
	북구	18.5	36.6	37.1	7.8	100(205)
	광산구	6.1	36.3	47.6	9.9	100(212)
합계(실수)		10.7(75)	37.3(262)	43.1(303)	9.0(63)	100(703)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3.7%가 그렇다, 11.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5.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2.1%보다 6.9%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북구,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10>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정서, 행동문제

(단위: %,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5	42.1	36.8	10.5	100(19)
	여자	7.1	48.2	32.9	11.8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6.3	53.1	34.4	6.3	100(32)
	남구	0.0	42.1	31.6	26.3	100(19)
	북구	14.3	50.0	21.4	14.3	100(14)
	광산구	10.5	44.7	36.8	7.9	100(38)
합계(실수)		7.7(8)	47.1(49)	33.7(35)	11.5(12)	100(104)

5)“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유해매체관련 중독을 예방(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에 41.8%가 그렇다, 8.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0.5%가 유해매체 관련 중독을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와 북구보다 서구, 남구, 광산구에 사는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11>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 유해매체 관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2.2	38.6	39.7	9.6	100(345)
	여자	11.4	36.9	43.9	7.8	100(360)
학교	초등학교	12.4	27.7	47.2	12.8	100(282)
	중학교	8.8	40.0	44.4	6.8	100(205)
	고등학교	13.8	48.6	32.6	5.0	100(218)
거주지역	동구	6.7	53.3	33.3	6.7	100(30)
	서구	5.5	37.8	48.0	8.7	100(127)
	남구	10.8	38.5	45.4	5.4	100(130)
	북구	20.4	38.3	32.5	8.7	100(206)
	광산구	8.5	34.4	46.2	10.8	100(212)
합계(실수)		11.8(83)	37.7(266)	41.8(295)	8.7(61)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2.7%가 그렇다, 4.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7.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0.5%보다 13.0%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북구,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였다.

<표-12>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 유해매체 관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5	57.9	26.3	5.3	100(19)
	여자	5.9	55.3	34.1	4.7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3.1	71.9	25.0	0.0	100(32)
	남구	10.5	31.6	47.4	10.5	100(129)
	북구	7.1	57.1	35.7	0.0	100(14)
	광산구	7.9	55.3	28.9	7.9	100(38)
합계(실수)		6.7 (7)	55.8 (58)	32.7 (34)	4.8 (5)	100 (104)

지역사회의‘건강환경’을 응급조치, 성교육과 상담, 위험행동 예방상담, 정서·행동문제 상담, 유해매체 관련 교육과 상담 등 5가지 지표로 파악하면, 청소년은 응급조치는 77.9%가“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성교육과 상담(51.4%), 위험행동(51.7%), 정서·행동문제(52.1%), 유해매체 관련 교육과 상담(50.5%) 등은 절반 정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13>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응급조치	3.3	18.8	53.7	24.2	100.0
성교육과 상담	10.2	38.3	41.8	9.6	100.0
위험행동	10.9	37.4	43.2	8.5	100.0
정서·행동문제	10.7	37.3	43.1	9.0	100.0
유해매체 관련	11.8	37.7	41.8	8.7	100.0

지역사회의 '건강환경'의 5가지 지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응급조치는 60.0%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성교육과 상담(41.3%), 위험행동(34.6%), 정서·행동문제(45.2%), 유해매체 관련 교육과 상담(37.5%) 등에 대해서는 절반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건강환경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이 응급조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표-14> 학부모가 인식하는 건강환경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응급조치	3.0	37.0	44.0	16.0	100.0
성교육과 상담	15.4	43.9	34.6	6.7	100.0
위험행동	10.6	54.8	31.7	2.9	100.0
정서,행동문제	7.7	47.1	33.7	11.5	100.0
유해매체 관련	6.7	55.8	32.7	4.8	100.0

3. 안전과 보호 환경

‘안전과 보호 환경’은 9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악취, 공기오염, 소음 등 건강을 해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안전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공공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 어린이·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 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구조물(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안전하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집 주변에 성인용 광고 전단지가 길거리에 널려 있지 않으며 간판에 야한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지 않다, 어린이·청소년이 술, 담배, 본드, 가스 등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파악하였다.

- 1)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악취, 공기오염, 소음 등 건강을 해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에 46.0%가 그렇다, 10.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6.5%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이며, 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15>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쓰레기더미, 유해물질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7.3	38.4	42.4	11.9	100(344)
	여자	6.9	34.6	49.3	9.1	100(361)
학교	초등학교	8.5	30.0	50.2	11.3	100(283)
	중학교	7.8	43.9	40.0	8.3	100(205)
	고등학교	4.6	37.8	46.1	11.5	100(217)
거주 지역	동구	10.0	53.3	33.3	3.3	100(30)
	서구	9.4	37.8	41.7	11.0	100(127)
	남구	3.8	35.4	49.2	11.5	100(130)
	북구	8.7	35.7	43.5	12.1	100(207)
	광산구	5.7	34.6	50.7	9.0	100(211)
합계 (실수)		7.1 (50)	36.5 (257)	46.0 (324)	10.5 (74)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5.6%가 그렇다, 2.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8.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6.5%보다 8.0%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북구,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16>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쓰레기더미, 유해물질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57.9	42.1	0.0	100(19)
	여자	2.4	47.6	46.4	3.6	100(84)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0.0	35.5	61.3	3.2	100(31)
	남구	0.0	42.1	52.6	5.3	100(19)
	북구	0.0	50.0	42.9	7.1	100(14)
	광산구	5.3	63.2	31.6	0.0	100(38)
합계 (실수)		1.9 (2)	49.5 (51)	45.6 (47)	2.9 (3)	100 (103)

2)“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안전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32.0%가 그렇다, 6.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8.5%가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와 북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17>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공중화장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8.6	40.6	33.3	7.5	100(345)
	여자	17.2	46.5	30.7	5.5	100(361)
학교	초등학교	16.3	39.2	36.4	8.1	100(283)
	중학교	19.0	43.4	32.7	4.9	100(205)
	고등학교	18.8	49.5	25.7	6.0	100(218)
거주지역	동구	13.3	50.0	33.3	3.3	100(30)
	서구	11.0	44.9	39.4	4.7	100(127)
	남구	13.8	48.5	29.2	8.5	100(130)
	북구	25.6	40.1	28.0	6.3	100(207)
	광산구	17.5	42.5	33.0	7.1	100(212)
합계(실수)		17.8 (126)	43.6 (308)	32.0 (226)	6.5 (46)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3.1%가 그렇다, 3.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7.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38.5%보다 8.5%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의견의 차이는 별로 없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18>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공중화장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47.4	42.1	5.3	100(19)
	여자	2.4	50.6	43.4	3.6	100(83)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0.0	66.7	26.7	6.7	100(30)
	남구	0.0	15.8	78.9	5.3	100(19)
	북구	7.1	57.1	28.6	7.1	100(14)
	광산구	5.3	52.6	42.1	0.0	100(38)
합계(실수)		2.9(3)	50.0(51)	43.1(44)	3.9(4)	100(104)

3)“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공공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 어린이·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 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46.8%가 그렇다, 13.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0.7%가 각종 편의시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불편을 더 호소하고, 초등학교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19>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각종 편의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7.8	29.1	45.9	17.2	100(344)
	여자	5.5	36.0	47.6	10.8	100(361)
학교	초등학교	5.3	23.0	49.3	22.3	100(282)
	중학교	8.3	40.0	44.9	6.8	100(205)
	고등학교	6.9	38.1	45.4	9.6	100(218)
거주 지역	동구	3.3	46.7	46.7	3.3	100(30)
	서구	3.9	35.4	50.4	10.2	100(127)
	남구	4.6	23.1	56.9	15.4	100(130)
	북구	9.2	34.5	39.8	16.5	100(206)
	광산구	7.5	33.0	45.3	14.2	100(212)
합계(실수)		6.7(47)	32.6(230)	46.8(330)	13.9(98)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4.8%가 그렇다, 7.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2.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60.7%보다 1.8%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20>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각종 편의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26.3	52.6	15.8	100(19)
	여자	3.5	35.3	55.3	5.9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0.0	34.4	56.3	9.4	100(32)
	남구	0.0	31.6	52.6	15.8	100(19)
	북구	14.3	35.7	42.9	7.1	100(14)
	광산구	5.3	31.6	60.5	2.6	100(38)
합계(실수)		3.8 (4)	33.7 (35)	54.8 (57)	7.7 (8)	100 (104)

4)“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구조물(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60.3%가 그렇다, 20.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0.6%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표-21>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대중교통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3.5	15.1	58.3	23.2	100(345)
	여자	3.6	16.7	62.2	17.5	100(360)
학교	초등학교	2.1	12.8	56.7	28.4	100(282)
	중학교	4.4	19.5	60.5	15.6	100(205)
	고등학교	4.6	16.5	64.7	14.2	100(218)
거주 지역	동구	0.0	13.3	73.3	13.3	100(30)
	서구	0.8	17.3	62.2	19.7	100(127)
	남구	4.6	13.8	60.0	21.5	100(130)
	북구	3.9	16.5	60.2	19.4	100(206)
	광산구	4.7	16.0	57.5	21.7	100(212)
합계(실수)		3.5(25)	15.9(112)	60.3(425)	20.3(143)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4.8%가 그렇다, 6.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1.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80.6%보다 19.1%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주민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22>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대중교통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42.1	52.6	5.3	100(19)
	여자	8.2	29.4	55.3	7.1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9.4	28.1	46.9	15.6	100(32)
	남구	10.5	42.1	42.1	5.3	100(19)
	북구	14.3	21.4	64.3	0.0	100(14)
	광산구	0.0	34.2	63.2	2.6	100(38)
합계(실수)		6.7(7)	31.7(33)	54.8(57)	6.7(7)	100(104)

5)“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안전하다”에 49.3%가 그렇다, 22.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71.6%가 통학길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광산구에 사는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23>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집에서 학교 가는 길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0	20.7	50.7	23.6	100(343)
	여자	4.4	26.6	47.9	21.1	100(361)
학교	초등학교	4.3	16.7	44.7	34.4	100(282)
	중학교	4.9	25.4	52.2	17.6	100(205)
	고등학교	5.1	31.3	52.5	11.1	100(217)
거주 지역	동구	3.3	33.3	53.3	10.0	100(30)
	서구	3.9	25.2	52.8	18.1	100(127)
	남구	4.7	26.4	47.3	21.7	100(129)
	북구	6.8	27.2	46.1	19.9	100(206)
	광산구	3.3	16.5	50.9	29.2	100(212)
합계 (실수)		4.7 (33)	23.7 (167)	49.3 (348)	22.3 (157)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7.7%가 그렇다, 5.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3.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71.6%보다 8.1%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의견의 차이는 별로 없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24>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집에서 학교 가는 길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5	31.6	42.1	15.8	100(19)
	여자	3.5	31.8	61.2	3.5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6.3	25.0	62.5	6.3	100(32)
	남구	0.0	47.4	42.1	10.5	100(19)
	북구	7.1	28.6	64.3	0.0	100(14)
	광산구	5.3	28.9	60.5	5.3	100(38)
합계 (실수)		4.8 (5)	31.7 (33)	57.7 (60)	5.8 (6)	100 (104)

6)“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32.5%가 그렇다, 8.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1.2%가 자전거길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서구와 광산구에 사는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25>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자전거도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24.4	35.2	31.1	9.3	100(344)
	여자	17.8	40.3	33.9	8.1	100(360)
학교	초등학교	20.2	33.0	33.3	13.5	100(282)
	중학교	19.0	40.5	34.1	6.3	100(205)
	고등학교	24.0	41.5	30.0	4.6	100(217)
거주 지역	동구	16.7	60.0	20.0	3.3	100(30)
	서구	10.2	37.0	40.9	11.8	100(127)
	남구	21.5	36.2	36.9	5.4	100(130)
	북구	34.5	38.8	20.9	5.8	100(206)
	광산구	14.7	35.1	37.9	12.3	100(211)
합계 (실수)		21.0 (148)	37.8 (266)	32.5 (229)	8.7 (61)	100 (704)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28.8%가 그렇다, 3.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2.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1.2%보다 8.6%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표-26>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자전거도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5	68.4	21.1	0.0	100(19)
	여자	16.5	48.2	30.6	4.7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18.8	59.4	18.8	3.1	100(32)
	남구	0.0	31.6	57.9	10.5	100(19)
	북구	35.7	50.0	14.3	0.0	100(14)
	광산구	13.2	55.3	28.9	2.6	100(38)
합계 (실수)		15.4 (16)	51.9 (54)	28.8 (30)	3.8 (4)	100 (104)

7)“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에 41.6%가 그렇다, 12.1%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3.7%가 밤에도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안전하다고 보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동구와 북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27>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야간 조명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9.6	32.8	45.2	12.5	100(345)
	여자	12.2	38.1	38.1	11.7	100(360)
학교	초등학교	6.4	33.3	42.9	17.4	100(282)
	중학교	15.1	32.2	42.0	10.7	100(205)
	고등학교	12.8	41.3	39.4	6.4	100(218)
거주 지역	동구	6.7	53.3	40.0	0.0	100(30)
	서구	6.3	34.1	45.2	14.3	100(126)
	남구	10.8	33.1	41.5	14.6	100(130)
	북구	12.1	38.6	40.6	8.7	100(207)
	광산구	13.2	32.1	40.6	14.2	100(212)
합계 (실수)		10.9 (77)	35.5 (250)	41.6 (293)	12.1 (85)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2.7%가 그렇다, 5.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8.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3.7%보다 5.2%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의견의 차이는 별로 없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28>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야간 조명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47.4	42.1	5.3	100(19)
	여자	8.3	42.9	42.9	6.0	100(84)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6.5	41.9	48.4	3.2	100(31)
	남구	5.3	31.6	47.4	15.8	100(19)
	북구	21.4	28.6	50.0	0.0	100(14)
	광산구	5.3	57.9	31.6	5.3	100(38)
합계 (실수)		7.8 (8)	43.7 (45)	42.7 (44)	5.8 (6)	100 (103)

8)“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집 주변에 성인용 광고 전단지가 길거리에 널려 있지 않으며 간판에 야한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지 않다”에 42.3%가 그렇다, 28.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71.0%가 성인용광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29>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성인용 광고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4	20.9	36.2	32.5	100(345)
	여자	7.0	19.8	48.2	25.1	100(359)
학교	초등학교	7.8	11.0	38.7	42.6	100(282)
	중학교	11.8	25.5	41.7	21.1	100(204)
	고등학교	6.9	27.5	47.7	17.9	100(218)
거주지역	동구	0.0	40.0	43.3	16.7	100(30)
	서구	9.4	25.2	41.7	23.6	100(127)
	남구	3.8	19.2	49.2	27.7	100(130)
	북구	11.7	14.6	40.0	33.7	100(205)
	광산구	9.4	20.8	40.6	29.2	100(212)
합계(실수)		8.7(61)	20.3(143)	42.3(298)	28.7(202)	100(704)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1.7%가 그렇다, 3.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5.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71.0%보다 25.4%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와 남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30>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성인용 광고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36.8	52.6	10.5	100(19)
	여자	11.9	46.4	39.3	2.4	100(84)
거주 지역	동구	100.0	0.0	0.0	0.0	100(1)
	서구	6.5	51.6	38.7	3.2	100(31)
	남구	10.5	52.6	31.6	5.3	100(19)
	북구	7.1	42.9	50.0	0.0	100(14)
	광산구	10.5	36.8	47.4	5.3	100(38)
	합계 (실수)	9.7 (10)	44.7 (46)	41.7 (43)	3.9 (4)	100 (103)

9)“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술, 담배, 본드, 가스 등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다”에 36.7%가 그렇다, 33.6%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70.3%가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북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31>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술, 담배, 본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7	18.0	36.2	35.1	100(345)
	여자	7.2	23.5	37.1	32.1	100(361)
학교	초등학교	6.0	8.1	31.1	54.8	100(283)
	중학교	10.7	27.8	37.6	23.9	100(205)
	고등학교	11.0	30.7	43.1	15.1	100(218)
거주 지역	동구	0.0	36.7	40.0	23.3	100(30)
	서구	7.9	22.8	39.4	29.9	100(127)
	남구	6.9	20.0	45.4	27.7	100(130)
	북구	11.1	18.8	32.4	37.7	100(207)
	광산구	9.9	19.8	33.5	36.8	100(212)
합계 (실수)		8.9 (63)	20.8 (147)	36.7 (259)	33.6 (237)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9.5%가 그렇다, 8.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8.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70.3%보다 12.1%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와 광산구 주민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

<표-32>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 술 담배 본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57.9	31.6	5.3	100(19)
	여자	1.2	35.7	53.6	9.5	100(84)
거주 지역	동구	0	0	0	0	0
	서구	3.1	53.1	34.4	9.4	100(32)
	남구	0.0	15.8	78.9	5.3	100(19)
	북구	0.0	14.3	78.6	7.1	100(14)
	광산구	2.6	50.0	36.8	10.5	100(38)
합계(실수)		1.9(2)	39.8(41)	49.5(51)	8.7(9)	100(103)

지역사회의‘안전과 보호환경’을 유해물질, 공중화장실, 각종 편의시설, 대중교통, 학교가는 길, 자전거도로, 야간조명시설, 성인용광고, 술 담배 본드로부터 보호 등 9가지 지표로 파악하면, 청소년의 80.6%가 대중교통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학교가는 길(71.6%), 성인용 광고로부터 안전(71.0%), 술 담배 본드로부터 안전(70.3%)하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38.5%에 불과했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성(41.2%)에 대해서도 평가가 낮았다.

<표-33>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쓰레기,유해물질	7.1	36.5	46.0	10.5	100.0
공중화장실	17.8	43.6	32.0	6.5	100.0
각종편의시설	6.7	32.6	46.8	13.9	100.0
대중교통	3.5	15.9	60.3	20.3	100.0
학교가는 길	4.7	23.7	49.3	22.3	100.0
자전거도로	21.0	37.8	32.5	8.7	100.0
야간조명시설	10.9	35.5	41.6	12.1	100.0
성인용 광고	8.7	20.3	42.3	28.7	100.0
술,담배,본드	8.9	20.8	36.7	33.6	100.0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환경'의 9가지 지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정성(47.0%)과 각종편의시설의 안전성(62.5%)만 청소년에 비교하여 높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보다 낮게 평가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한 항목은 자전거도로(32.6%), 야간조명시설의 안전성(36.9%), 성인용광고로부터 보호(45.6%) 등에 대해서 특히 낮게 평가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환경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은 대중교통의 안전성, 학교가는 길에 대해서만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전성, 자전거도로,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과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표-34> 학부모가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단위: %,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쓰레기,유해물질	1.9	49.5	45.6	2.9	100.0
공중화장실	2.9	50.0	43.1	3.9	100.0
각종편의시설	3.8	33.7	54.8	7.7	100.0
대중교통	6.7	31.7	54.8	6.7	100.0
학교가는 길	4.8	31.7	57.7	5.8	100.0
자전거도로	15.4	51.9	28.8	3.8	100.0
야간조명시설	5.3	57.9	31.6	5.3	100.0
성인용 광고	9.7	44.7	41.7	3.9	100.0
술,담배,본드	1.9	39.8	49.5	8.7	100.0

4. 교육환경

‘교육환경’은 7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방과후 학교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놀이활동·공연·참여 활동을 어린이·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경찰, 소방서, 병원, 교통공단, 예술단체, 회사 등)와 연계된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을 위한 자원(책, 학습CD, 교복 등)을 빌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악했다.

- 1)“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에 30.5%가 그렇다, 8.6%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9.1%가 직업체험교육이 다양하고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서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35>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직업체험 프로그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4.5	45.8	29.3	10.4	100(345)
	여자	17.2	44.3	31.6	6.9	100(361)
학교	초등학교	13.4	39.9	32.9	13.8	100(283)
	중학교	13.7	47.3	33.2	5.9	100(205)
	고등학교	21.1	49.5	24.8	4.6	100(218)
거주지역	동구	13.3	43.3	33.3	10.0	100(30)
	서구	8.7	51.2	30.7	9.4	100(127)
	남구	20.0	43.1	32.3	4.6	100(130)
	북구	21.7	39.6	28.0	10.6	100(207)
	광산구	12.3	48.1	31.1	8.5	100(212)
합계(실수)		15.9(112)	45.0(318)	30.5(215)	8.6(61)	100(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24.5%가 그렇다, 5.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0.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39.1%보다 8.7%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36>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직업체험 프로그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78.9	10.5	5.3	100(19)
	여자	14.5	51.8	27.7	6.0	100(83)
거주지역	동구	100.0	0.0	0.0	0.0	100(1)
	서구	25.8	51.6	22.6	0.0	100(31)
	남구	5.6	33.3	44.4	16.7	100(18)
	북구	14.3	50.0	35.7	0.0	100(14)
	광산구	2.6	76.3	13.2	7.9	100(38)
합계(실수)		12.7 (13)	56.9 (59)	24.5 (25)	5.9 (6)	100 (103)

2)“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에 43.8%가 그렇다, 11.1%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4.9%가 방과후 교육이 다양하고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북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37>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4.8	31.9	42.3	11.0	100(345)
	여자	11.7	31.9	45.3	11.1	100(360)
학교	초등학교	13.1	20.6	47.2	19.1	100(282)
	중학교	10.7	33.2	48.3	7.8	100(205)
	고등학교	15.6	45.4	35.3	3.7	100(218)
거주 지역	동구	6.7	46.7	40.0	6.7	100(30)
	서구	5.5	29.9	53.5	11.0	100(127)
	남구	12.3	32.3	45.4	10.0	100(130)
	북구	23.8	28.2	36.4	11.7	100(206)
	광산구	9.0	34.4	44.8	11.8	100(212)
합계(실수)		13.2(93)	31.9(225)	43.8(309)	11.1(78)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2.7%가 그렇다, 9.6%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2.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4.9%보다 12.6%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38>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68.4	21.1	10.5	100(19)
	여자	7.1	48.2	35.3	9.4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12.5	56.3	28.1	3.1	100(32)
	남구	5.3	36.8	42.1	15.8	100(19)
	북구	7.1	42.9	35.7	14.3	100(14)
	광산구	0.0	60.5	28.9	10.5	100(38)
합계(실수)		5.8(6)	51.9(54)	32.7(34)	9.6(10)	100(104)

3)“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방과후 학교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49.4%가 그렇다, 17.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7.1%가 방과후 학교시설이 개방되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별 차이가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39>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방과 후 학교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1.9	22.6	44.1	21.4	100(345)
	여자	7.8	23.5	54.6	14.1	100(361)
학교	초등학교	7.8	17.0	45.9	29.3	100(283)
	중학교	9.3	27.3	53.2	10.2	100(205)
	고등학교	12.8	27.1	50.5	9.6	100(218)
거주지역	동구	10.0	50.0	30.0	10.0	100(30)
	서구	12.6	18.1	54.3	15.0	100(127)
	남구	8.5	20.0	55.4	16.2	100(130)
	북구	11.6	24.2	47.3	16.9	100(207)
	광산구	7.1	23.1	47.6	22.2	100(212)
합계(실수)		9.8 (69)	23.1 (163)	49.4 (349)	17.7 (125)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0.8%가 그렇다, 4.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5.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67.1%보다 31.5%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표-40>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방과 후 학교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73.7	15.8	10.5	100(19)
	여자	2.4	60.0	34.1	3.5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3.1	62.5	34.4	0.0	100((32)
	남구	5.3	63.2	21.1	10.5	100((19)
	북구	0.0	64.3	35.7	0.0	100((14)
	광산구	0.0	60.5	31.6	7.9	100((38)
합계(실수)		1.9 (2)	62.5 (65)	30.8 (32)	4.8 (5)	100 (104)

- 4)“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놀이활동·공연·참여 활동을 어린이·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에 42.6%가 그렇다, 12.2%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4.8%가 놀이활동 공간이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별 차이가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41>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놀이활동, 공연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1.9	34.0	40.7	13.4	100(344)
	여자	11.1	33.5	44.3	11.1	100(361)
학교	초등학교	7.8	29.0	43.8	19.4	100(283)
	중학교	13.2	37.1	40.5	9.3	100(205)
	고등학교	14.7	36.9	42.9	5.5	100(217)
거주 지역	동구	16.7	53.3	23.3	6.7	100(30)
	서구	6.3	33.1	47.2	13.4	100(127)
	남구	11.5	30.8	47.7	10.0	100(130)
	북구	14.0	34.3	38.2	13.5	100(207)
	광산구	11.4	32.7	43.6	12.3	100(211)
합계(실수)		11.5(81)	33.8(238)	42.6(300)	12.2(86)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3.7%가 그렇다, 4.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8.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4.8%보다 16.3%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북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42>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놀이활동, 공연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73.7	15.8	5.3	100(19)
	여자	4.7	55.3	36.5	3.5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6.3	50.0	43.8	0.0	100(32)
	남구	5.3	47.4	42.1	5.3	100(19)
	북구	7.1	64.3	21.4	7.1	100(14)
	광산구	0.0	60.5	31.6	7.9	100(38)
합계(실수)		4.8 (5)	56.7 (59)	33.7 (35)	4.8 (5)	100 (104)

5)“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경찰, 소방서, 병원, 교통공단, 예술단체, 회사 등)와 연계된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39.9%가 그렇다, 8.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8.4%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나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별 차이가 없고, 초등학교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43>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예술단체, 회사 연계나눔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2.5	41.3	36.9	9.3	100(344)
	여자	10.2	39.3	42.7	7.8	100(361)
학교	초등학교	8.5	31.8	46.6	13.1	100(283)
	중학교	10.3	46.6	38.7	4.4	100(204)
	고등학교	16.1	45.4	32.1	6.4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0.0	50.0	33.3	6.7	100(30)
	서구	7.1	40.2	42.5	10.2	100(127)
	남구	9.2	46.9	37.7	6.2	100(130)
	북구	18.4	38.8	35.0	7.8	100(206)
	광산구	8.5	36.3	45.3	9.9	100(212)
합계(실수)		11.3(80)	40.3(284)	39.9(281)	8.5(60)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0.8%가 그렇다, 6.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7.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8.4%보다 10.9%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44>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예술단체, 회사 연계나눔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5	63.2	15.8	10.5	100(19)
	여자	2.4	57.6	34.1	5.9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3.1	59.4	37.5	0.0	100(32)
	남구	5.3	26.3	52.6	15.8	100(19)
	북구	7.1	64.3	21.4	7.1	100(14)
	광산구	2.6	71.1	18.4	7.9	100(38)
합계(실수)		3.8(4)	58.7(61)	30.8(32)	6.7(7)	100(104)

6)“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교육을 위한 자원(책, 학습CD, 교복 등)을 빌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36.6%가 그렇다, 10.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7.4%가 교육자원을 빌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별 차이가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에 사는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45>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교육자원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4.2	39.2	36.9	9.6	100(344)
	여자	13.6	38.1	36.4	11.9	100(360)
학교	초등학교	14.2	33.0	36.9	16.0	100(282)
	중학교	14.1	41.5	37.1	7.3	100(205)
	고등학교	13.4	43.3	35.9	7.4	100(217)
거주지역	동구	16.7	50.0	26.7	6.7	100(30)
	서구	9.4	39.4	39.4	11.8	100(127)
	남구	13.8	37.7	40.0	8.5	100(130)
	북구	20.0	39.5	31.2	9.3	100(205)
	광산구	10.4	36.3	39.6	13.7	100(212)
합계(실수)		13.9(98)	38.6(272)	36.6(258)	10.8(76)	100(704)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3.7%가 그렇다, 6.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0.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7.4%보다 7.0%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46>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교육자원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3.2	15.8	15.8	100(19)
	여자	5.9	51.8	37.6	4.7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3.1	62.5	34.4	0.0	100(32)
	남구	5.3	47.4	36.8	10.5	100(19)
	북구	14.3	42.9	35.7	7.1	100(14)
	광산구	5.3	55.3	28.9	10.5	100(38)
합계(실수)		5.8(6)	53.8(56)	33.7(35)	6.7(7)	100(104)

7)“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에 47.7%가 그렇다, 28.1%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75.8%가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47>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 도서관이용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5	16.6	46.2	31.7	100(344)
	여자	6.6	19.7	49.0	24.7	100(361)
학교	초등학교	2.8	13.5	44.7	39.0	100(282)
	중학교	9.8	23.9	47.8	18.5	100(205)
	고등학교	6.9	18.8	51.4	22.9	100(218)
거주 지역	동구	6.7	20.0	53.3	20.0	100(30)
	서구	7.1	19.7	50.4	22.8	100(127)
	남구	3.8	20.0	50.0	26.2	100(130)
	북구	6.3	11.7	46.6	35.4	100(206)
	광산구	6.6	22.2	44.8	26.4	100(212)
합계(실수)		6.1(43)	18.2(128)	47.7(336)	28.1(198)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8.5%가 그렇다, 10.6%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9.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75.8%보다 26.7%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48>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 도서관 이용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52.6	31.6	10.5	100(19)
	여자	5.9	43.5	40.0	10.6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0.0	100.0	100(1)
	서구	3.1	46.9	37.5	12.5	100(32)
	남구	5.3	68.4	21.1	5.3	100(19)
	북구	14.3	28.6	57.1	0.0	100(14)
	광산구	5.3	39.5	42.1	13.2	100(38)
합계(실수)		5.8(6)	45.2(47)	38.5(40)	10.6(11)	100(104)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직업체험, 방과후교육, 방과후 학교시설 이용, 놀이활동 공간, 예술단체 연계, 교육자원 활용, 도서관 이용 등 7가지 지표로 파악하면, 청소년은 도서관이용(77.8%)과 방과후 학교시설의 이용(67.1%)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직업체험(39.1%), 교육자원의 활용(47.5%), 예술단체와의 연계(48.4%)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표-49>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직업체험	15.9	45.0	30.5	8.6	100.0
방과후교육	13.2	31.9	43.8	11.1	100.0
방과후학교시설	9.8	23.1	49.4	17.7	100.0
놀이활동,공연	11.5	33.8	42.6	12.2	100.0
예술단체 연계	11.3	40.3	39.9	8.5	100.0
교육자원	13.9	38.6	36.6	10.8	100.0
도서관이용	6.1	18.2	47.7	28.1	100.0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의 7가지 지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도서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49.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직업 체험의 다양성(30.4%), 방과후 학교시설의 이용(35.6%), 예술단체와 연계(37.5%), 놀이활동 공간(38.5%)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을 것을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체험의 다양성, 예술단체와의 연계, 교육자원의 활용에 좀 더 역점을 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50>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환경

(단위: %,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직업체험	12.7	56.9	24.5	5.9	100.0
방과후교육	5.8	51.9	32.7	9.6	100.0
방과후학교시설	1.9	62.5	30.8	4.8	100.0
놀이활동, 공연	4.8	56.7	33.7	4.8	100.0
예술단체 연계	3.8	58.7	30.8	6.7	100.0
교육자원	5.8	53.8	33.7	6.7	100.0
도서관이용	5.8	45.2	38.5	10.6	100.0

5. 놀이와 여가환경

‘놀이와 여가환경’은 7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이 문화·예술 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 준다,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놀이 공간(놀이터, 공원 등)이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놀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놀이터나 공원 이외에도 집 근처의 다른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나무, 식물, 꽃, 호수 등 자연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파악했다.

1)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에 40.8%가 그렇다, 9.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0.1%가 청소년시설이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와 북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1>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자기계발, 취미생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3.3	38.3	37.7	10.7	100(345)
	여자	10.8	37.4	43.8	8.0	100(361)
학교	초등학교	13.1	25.4	46.6	14.8	100(283)
	중학교	10.7	43.9	38.5	6.8	100(205)
	고등학교	11.9	48.2	35.3	4.6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0.0	46.7	36.7	6.7	100(30)
	서구	7.9	29.9	53.5	8.7	100(127)
	남구	8.5	43.8	40.0	7.7	100(130)
	북구	20.8	35.3	34.8	9.2	100(207)
	광산구	8.5	40.1	40.1	11.3	100(212)
합계 (실수)		12.0 (85)	37.8 (267)	40.8 (288)	9.3 (66)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27.9%가 그렇다, 5.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3.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0.1%보다 16.4%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2>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자기계발, 취미생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8.4	21.1	5.3	100(19)
	여자	5.9	58.8	29.4	5.9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6.3	59.4	31.3	3.1	100(32)
	남구	10.5	47.4	31.6	10.5	100(19)
	북구	0.0	57.1	35.7	7.1	100(14)
	광산구	5.3	71.1	18.4	5.3	100(38)
합계 (실수)		5.8 (6)	60.6 (63)	27.9 (29)	5.8 (6)	100 (104)

2)“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이 문화·예술 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 준다”에 36.4%가 그렇다, 8.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5.3%가 청소년시설이 문화·예술활동을 연습할 공간을 대여하여 준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서구 청소년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3〉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공연장소대여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5.4	41.2	34.5	9.0	100(345)
	여자	13.6	39.3	38.2	8.9	100(361)
학교	초등학교	16.6	31.1	41.3	11.0	100(283)
	중학교	14.1	43.4	34.6	7.8	100(205)
	고등학교	11.9	49.1	31.7	7.3	100(218)
거주지역	동구	20.0	53.3	23.3	3.3	100(30)
	서구	5.5	38.6	49.6	6.3	100(127)
	남구	10.8	46.9	34.6	7.7	100(130)
	북구	23.7	35.7	30.4	10.1	100(207)
	광산구	12.3	39.6	37.3	10.8	100(212)
합계(실수)		14.4(102)	40.2(284)	36.4(257)	8.9(63)	100(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3.7%가 그렇다, 5.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9.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5.3%보다 5.8%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4>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공연장소대여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8.4	15.8	10.5	100(19)
	여자	5.9	51.8	37.6	4.7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6.3	50.0	43.8	0.0	100(32)
	남구	5.3	31.6	52.6	10.5	100(19)
	북구	0.0	71.4	21.4	7.1	100(14)
	광산구	7.9	63.2	21.1	7.9	100(38)
	합계(실수)	5.8(6)	54.8(56)	33.7(35)	5.8(6)	100(103)

- 3)“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에 38.2%가 그렇다, 9.4%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7.6%가 청소년전용시설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5>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프로그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3.7	37.8	38.1	10.5	100(344)
	여자	10.5	42.9	38.2	8.3	100(361)
학교	초등학교	10.6	27.6	46.3	15.5	100(283)
	중학교	14.1	42.4	35.6	7.8	100(205)
	고등학교	12.0	55.3	30.0	2.8	100(217)
거주 지역	동구	16.7	63.3	16.7	3.3	100(30)
	서구	8.7	38.6	45.7	7.1	100(127)
	남구	8.5	44.6	40.0	6.9	100(130)
	북구	17.0	39.8	34.0	9.2	100(206)
	광산구	10.8	36.3	39.6	13.2	100(212)
합계(실수)		12.1(85)	40.4(285)	38.2(269)	9.4(66)	100(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5.0%가 그렇다, 3.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8.9%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7.6%보다 8.7%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6>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프로그램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8.4	26.3	0.0	100(19)
	여자	9.5	48.8	36.9	4.8	100(84)
거주 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9.4	46.9	40.6	3.1	100(32)
	남구	16.7	22.2	50.0	11.1	100(18)
	북구	7.1	57.1	35.7	0.0	100(14)
	광산구	5.3	71.1	21.1	2.6	100(38)
합계 (실수)		8.7 (9)	52.4 (54)	35.0 (36)	3.9 (4)	100 (103)

4)“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놀이 공간(놀이터, 공원 등)이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놀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에 43.7%가 그렇다, 16.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0.0%가 놀이공간이 풍부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7>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놀이 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1.9	32.0	38.1	18.0	100(344)
	여자	10.0	26.3	49.0	14.7	100(361)
학교	초등학교	11.7	23.0	40.4	24.8	100(282)
	중학교	12.7	34.1	42.9	10.2	100(205)
	고등학교	8.3	32.1	48.6	11.0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3.3	40.0	43.3	3.3	100(30)
	서구	7.9	26.0	47.2	18.9	100(127)
	남구	6.9	29.2	46.9	16.9	100(130)
	북구	15.0	28.2	43.7	13.1	100(206)
	광산구	10.8	30.2	39.6	19.3	100(212)
합계 (실수)		10.9 (77)	29.1 (205)	43.7 (308)	16.3 (115)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3.3%가 그렇다, 3.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7.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60.0%보다 12.9%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8>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놀이 시설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0.5	47.4	42.1	0.0	100(19)
	여자	8.2	43.5	43.5	4.7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12.5	37.5	46.9	3.1	100(32)
	남구	15.8	36.8	36.8	10.5	100(19)
	북구	7.1	42.9	50.0	0.0	100(14)
	광산구	2.6	52.6	42.1	2.6	100(38)
합계 (실수)		8.7 (9)	44.2 (46)	43.3 (45)	3.8 (4)	100 (104)

5)“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놀이터나 공원 이외에도 집 근처의 다른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에 38.2%가 그렇다, 13.2%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1.4%가 집근처의 다양한 장소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북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59>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놀이장소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6.3	36.2	32.4	15.2	100(343)
	여자	14.1	30.5	44.0	11.4	100(361)
학교	초등학교	16.7	31.3	33.8	18.1	100(281)
	중학교	14.6	35.6	39.5	10.2	100(205)
	고등학교	13.8	33.5	43.1	9.6	100(218)
거주지역	동구	6.7	33.3	53.3	6.7	100(30)
	서구	11.8	36.2	40.9	11.0	100(127)
	남구	8.5	33.8	43.1	14.6	100(130)
	북구	23.4	33.7	32.2	10.7	100(205)
	광산구	14.6	30.7	37.7	17.0	100(212)
합계(실수)		15.2 (107)	33.2 (234)	38.4 (270)	13.2 (93)	100 (704)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7.9%가 그렇다, 8.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6.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51.4%보다 4.8%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0>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놀이장소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8.4	10.5	15.8	100(19)
	여자	10.7	38.1	44.0	7.1	100(84)
거주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12.9	29.0	51.6	6.5	100(31)
	남구	10.5	36.8	31.6	21.1	100(19)
	북구	14.3	35.7	50.0	0.0	100(14)
	광산구	5.3	60.5	26.3	7.9	100(38)
합계(실수)		9.7 (10)	43.7 (45)	37.9 (39)	8.7 (9)	100 (103)

- 6)“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무, 식물, 꽃, 호수 등 자연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에 36.0%가 그렇다, 9.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5.9%가 자연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과 학교급별로 차이는 별로 없고, 거주지역별로 동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1>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자연속 다양한 놀이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8.6	37.7	34.2	9.6	100(345)
	여자	13.9	38.1	37.8	10.3	100(360)
학교	초등학교	17.3	35.7	36.4	10.6	100(283)
	중학교	17.1	40.0	34.1	8.8	100(205)
	고등학교	13.8	38.7	37.3	10.1	100(217)
거주지역	동구	20.0	56.7	16.7	6.7	100(30)
	서구	15.0	34.6	42.5	7.9	100(127)
	남구	11.6	27.1	46.5	14.7	100(129)
	북구	21.7	41.1	30.0	7.2	100(207)
	광산구	13.7	40.6	34.4	11.3	100(212)
합계(실수)		16.2 (114)	37.9 (267)	36.0 (254)	9.9 (70)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1.3%가 그렇다, 7.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9.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5.9%보다 3.1%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2>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자연속 다양한 놀이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57.9	31.6	5.3	100(19)
	여자	7.1	41.2	43.5	8.2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12.5	28.1	50.0	9.4	100(32)
	남구	0.0	31.6	52.6	15.8	100(19)
	북구	14.3	42.9	42.9	0.0	100(14)
	광산구	2.6	63.2	28.9	5.3	100(38)
합계(실수)		6.7 (7)	44.2 (46)	41.3 (43)	7.7 (8)	100 (104)

7)“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에 47.5%가 그렇다, 16.2%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3.7%가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3>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다양한 교류활동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1.0	29.4	42.7	16.9	100(344)
	여자	9.1	23.3	52.1	15.5	100(361)
학교	초등학교	12.7	19.8	46.3	21.2	100(283)
	중학교	10.7	32.2	44.9	12.2	100(205)
	고등학교	6.0	29.0	51.6	13.4	100(217)
거주 지역	동구	3.3	40.0	50.0	6.7	100(30)
	서구	12.6	24.4	50.4	12.6	100(127)
	남구	6.9	26.2	46.9	20.0	100(130)
	북구	13.1	25.7	48.5	12.6	100(206)
	광산구	8.5	25.9	44.8	20.8	100(212)
합계 (실수)		10.1 (71)	26.2 (185)	47.5 (335)	16.2 (114)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0.8%가 그렇다, 14.6%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5.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63.7%보다 8.3%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4>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 다양한 교류활동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52.6	36.8	5.3	100(19)
	여자	3.6	38.1	41.7	16.7	100(84)
거주 지역	동구	100.0	0.0	0.0	0.0	100(1)
	서구	0.0	29.0	51.6	19.4	100(31)
	남구	0.0	15.8	63.2	21.1	100(19)
	북구	14.3	42.9	28.6	14.3	100(14)
	광산구	2.6	63.2	26.3	7.9	100(38)
합계 (실수)		3.9 (4)	40.8 (42)	40.8 (42)	14.6 (15)	100 (103)

지역사회의 '놀이와 여가환경'을 자기계발, 공연장소 대여, 수련활동, 놀이시설, 놀이장소, 자연속 놀이, 다양한 교류 등 7가지 지표로 파악하면, 청소년은 다양한 교류(63.7%), 놀이시설(60.0%), 놀이장소(51.6%)에 대해서만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하였다.

<표-65>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자기계발,취미	12.0	37.8	40.8	9.3	100.0
공연장소 대여	14.4	40.2	36.4	8.9	100.0
수련활동	12.1	40.4	38.2	9.4	100.0
놀이시설	10.9	29.1	43.7	16.3	100.0
놀이장소	15.2	33.2	38.4	13.2	100.0
자연속 놀이	16.2	37.9	36.0	9.9	100.0
다양한 교류	10.1	26.2	47.5	16.2	100.0

지역사회의 '놀이와 여가환경'의 7가지 지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자연속 다양한 놀이에 대해서만 청소년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고, 모든 항목에서 청소년보다 낮게 평가하고 특히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컸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놀이와 여가환경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이 다양한 교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을 것을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놀이와 여가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항을 참고하여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66> 학부모가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자기계발,취미	5.8	60.6	27.9	5.8	100.0
공연장소 대여	5.8	54.8	33.7	5.8	100.0
수련활동	8.7	52.4	35.0	3.9	100.0
놀이시설	8.7	44.2	43.3	3.8	100.0
놀이장소	9.7	43.7	37.9	8.7	100.0
자연속 놀이	6.7	44.2	41.3	7.7	100.0
다양한 교류	3.9	40.8	40.8	14.6	100.0

6. 사회참여와 정책

‘사회참여와 정책’은 6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에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어린이·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구청,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어린이·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파악했다.

- 1)“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에 28.0%가 그렇다, 5.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3.5%가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북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7>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지역사회 개최 축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9.2	48.7	26.8	5.2	100(343)
	여자	15.8	49.3	29.1	5.8	100(361)
학교	초등학교	17.0	39.4	35.8	7.8	100(282)
	중학교	17.1	54.6	22.4	5.9	100(205)
	고등학교	18.4	56.2	23.0	2.3	100(217)
거주 지역	동구	10.0	63.3	23.3	3.3	100(30)
	서구	14.2	48.8	31.5	5.5	100(127)
	남구	13.1	50.8	29.2	6.9	100(130)
	북구	23.8	48.1	23.3	4.9	100(206)
	광산구	17.1	46.9	30.3	5.7	100(211)
합계(실수)		17.5 (123)	49.0 (345)	28.0 (197)	5.5 (39)	100 (704)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4.2%가 그렇다, 3.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8.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33.5%보다 14.5%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8〉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지역사회 개최 축제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3.2	31.6	0.0	100(19)
	여자	3.5	44.7	47.1	4.7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3.1	46.9	50.0	0.0	100(32)
	남구	0.0	36.8	63.2	0.0	100(19)
	북구	7.1	50.0	28.6	14.3	100(14)
	광산구	5.3	55.3	34.2	5.3	100(38)
합계(실수)		3.8 (4)	48.1 (50)	44.2 (46)	3.8 (4)	100 (104)

2)“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에 26.0%가 그렇다, 7.0%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3.0%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서구와 남구 청소년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69>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자원봉사활동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9.7	48.7	24.3	7.2	100(345)
	여자	18.7	47.1	27.6	6.7	100(359)
학교	초등학교	27.4	48.0	18.9	5.7	100(281)
	중학교	15.1	47.3	30.7	6.8	100(205)
	고등학교	12.4	48.2	30.7	8.7	100(218)
거주지역	동구	13.3	66.7	16.7	3.3	100(30)
	서구	13.4	47.2	31.5	7.9	100(127)
	남구	13.8	41.5	33.1	11.5	100(130)
	북구	24.9	48.8	20.5	5.9	100(205)
	광산구	21.2	48.6	25.0	5.2	100(212)
합계(실수)		19.2(135)	47.9(337)	26.0(183)	7.0(49)	100(704)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0.0%가 그렇다, 3.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3.8%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33.0%보다 20.8%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서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0>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자원봉사활동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63.2	36.8	0.0	100(19)
	여자	2.4	40.0	52.9	4.7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3.1	56.3	34.4	6.3	100(32)
	남구	0.0	31.6	68.4	0.0	100(19)
	북구	7.1	28.6	64.3	0.0	100(14)
	광산구	0.0	47.4	47.4	5.3	100(38)
합계(실수)		1.9(2)	44.2(46)	50.0(52)	3.8(4)	100(104)

3)“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에 36.1%가 그렇다, 5.0%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1.1%가 지역 정보와 정책내용을 잘 전달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북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1>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정보정책내용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6.2	42.3	35.4	6.1	100(345)
	여자	13.1	46.1	36.9	3.9	100(358)
학교	초등학교	13.8	37.9	40.8	7.4	100(282)
	중학교	15.3	41.9	39.4	3.4	100(203)
	고등학교	15.1	54.6	27.1	3.2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3.3	40.0	43.3	3.3	100(30)
	서구	12.6	41.7	42.5	3.1	100(127)
	남구	13.8	50.8	31.5	3.8	100(130)
	북구	19.6	44.6	31.9	3.9	100(204)
	광산구	11.8	42.0	38.2	8.0	100(212)
합계 (실수)		14.7 (103)	44.2 (311)	36.1 (254)	5.0 (35)	100 (703)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5.6%가 그렇다, 3.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39.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1.1%보다 1.7%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2>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정보정책내용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63.2	26.3	5.3	100(19)
	여자	4.7	54.1	37.6	3.5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100.0	0.0	0.0	100(1)
	서구	6.3	56.3	37.5	0.0	100(32)
	남구	0.0	42.1	52.6	5.3	100(19)
	북구	14.3	35.7	42.9	7.1	100(14)
	광산구	2.6	68.4	23.7	5.3	100(38)
합계(실수)		4.8 (5)	55.8 (58)	35.6 (37)	3.8 (4)	100 (104)

4)“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에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에 40.7%가 그렇다, 9.1%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9.8%가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학교교급별, 그리고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73>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사회문제 인터넷활용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4.8	37.1	39.4	8.7	100(345)
	여자	9.7	38.9	41.9	9.4	100(360)
학교	초등학교	14.1	35.3	40.6	9.9	100(283)
	중학교	11.8	42.6	35.3	10.3	100(204)
	고등학교	10.1	37.2	45.9	6.9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0.0	46.7	40.0	3.3	100(30)
	서구	13.4	39.4	40.9	6.3	100(127)
	남구	10.0	34.6	46.9	8.5	100(130)
	북구	15.5	36.4	39.3	8.7	100(206)
	광산구	9.9	39.6	38.2	12.3	100(212)
합계(실수)		12.2 (86)	38.0 (268)	40.7 (287)	9.1 (64)	100 (705)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0.5%가 그렇다, 3.9%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4.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9.8%보다 4.6%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4>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사회문제 인터넷활용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57.9	42.1	0.0	100(19)
	여자	3.6	39.3	52.4	4.8	100(84)
거주지역	동구	0.0	0.0	100.0	0.0	100(1)
	서구	3.2	41.9	51.6	3.2	100(31)
	남구	0.0	31.6	63.2	5.3	100(19)
	북구	7.1	42.9	42.9	7.1	100(14)
	광산구	2.6	50.0	44.7	2.6	100(38)
합계(실수)		2.9 (3)	42.7 (44)	50.5 (52)	3.9 (4)	100 (103)

- 5)“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어린이·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에 38.0%가 그렇다, 7.4%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45.4%가 단체장이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동구 청소년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5>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시장, 구청장의 어린이, 청소년복지관심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13.6	43.2	36.8	6.4	100(345)
	여자	10.5	42.1	39.1	8.3	100(361)
학교	초등학교	11.7	32.2	44.9	11.3	100(283)
	중학교	13.2	46.3	36.1	4.4	100(205)
	고등학교	11.5	52.8	30.7	5.0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0.0	76.7	10.0	3.3	100(30)
	서구	8.7	51.2	35.4	4.7	100(127)
	남구	8.5	35.4	48.5	7.7	100(130)
	북구	15.9	41.5	33.8	8.7	100(207)
	광산구	12.7	38.2	41.0	8.0	100(212)
합계 (실수)		12.0 (85)	42.6 (301)	38.0 (268)	7.4 (32)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2.7%가 그렇다, 23.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6.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45.4%보다 20.6%포인트 높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6>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시장, 구청장의 어린이, 청소년복지관심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0.0	38.9	50.0	11.1	100(18)
	여자	9.4	23.5	41.2	25.9	100(85)
거주 지역	동구	100.0	0.0	0.0	0.0	100(1)
	서구	12.9	25.8	25.8	35.5	100(31)
	남구	5.3	15.8	36.8	42.1	100(19)
	북구	14.3	28.6	50.0	7.1	100(14)
	광산구	0.0	31.6	57.9	10.5	100(38)
합계 (실수)		7.8 (8)	26.2 (27)	42.7 (44)	23.3 (24)	100 (103)

6)“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구청,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어린이·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에 53.7%가 그렇다, 11.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65.5%가 공공기관이 차별없이 친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77>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어린이, 청소년 무차별 친절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9.9	27.0	49.9	13.3	100(345)
	여자	8.6	23.8	57.3	10.2	100(361)
학교	초등학교	8.5	18.4	56.9	16.3	100(283)
	중학교	8.8	31.2	49.3	10.7	100(205)
	고등학교	10.6	28.9	53.7	6.9	100(218)
거주 지역	동구	3.3	36.7	50.0	10.0	100(30)
	서구	6.3	25.2	59.1	9.4	100(127)
	남구	5.4	20.8	59.2	14.6	100(130)
	북구	15.5	28.0	45.9	10.6	100(207)
	광산구	8.0	24.1	55.2	12.7	100(212)
합계 (실수)		9.2 (65)	25.4 (179)	53.7 (379)	11.8 (83)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35.9%가 그렇다, 23.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59.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65.5%보다 6.3%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남구 주민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78>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 어린이, 청소년 무차별 친절

(단위:%, 수)

구분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5.6	38.9	5.6	100(18)
	여자	37.6	35.3	27.1	100(85)
거주 지역	동구	100.0	0.0	0.0	100(1)
	서구	29.0	32.3	38.7	100(31)
	남구	10.5	47.4	42.1	100(19)
	북구	57.1	35.7	7.1	100(14)
	광산구	57.9	34.2	7.9	100(38)
합계(실수)		40.8 (42)	35.9 (37)	23.3 (24)	100 (1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사회참여와 정책’을 지역축제, 자원봉사, 정보정책, 인터넷 활용, 단체장 관심, 무차별 친절 등 6가지 지표로 파악하면, “공공기관은 어린이·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에 대해서만 65.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여(33.5%)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33.0%) 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표-79>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지역축제	17.5	49.0	28.0	5.5	100.0
자원봉사	19.2	47.9	26.0	7.0	100.0
정보정책	14.7	44.2	36.1	5.0	100.0
인터넷활용	12.2	38.0	40.7	9.1	100.0
단체장 관심	12.0	42.6	38.0	7.4	100.0
무차별 친절	9.2	25.4	53.7	11.8	100.0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의 6가지 지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긍정적이었다. 학부모는 단체장의 관심(66.0%), 무차별 친절(59.2%), 청소년의 인터넷참여(54.4%), 자원봉사활동(53.8%)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학부모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에 청소년과 함께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을 종합하면 단체장이 청소년복지에 관심을 갖고, 무차별 친절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보를 나누고 청소년이 지역축제나 행사,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표-80> 학부모가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지역축제	3.8	48.1	44.2	3.8	100.0
자원봉사	1.9	44.2	50.0	3.8	100.0
정보정책	4.8	55.8	35.6	3.8	100.0
인터넷활용	2.9	42.7	50.5	3.9	100.0
단체장 관심	7.8	26.2	42.7	23.3	100.0
무차별 친절	-	40.8	35.9	23.3	100.0

7.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은 5가지 지표로 파악했다.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꿈의 공원」 활용공간으로 적절하다, 광산구 수완 지구에 있는 원당숲은 어린이·청소년 「모험놀이터」의 공간으로 적절하다, 동 단위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로 파악했다.

- 1)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에 38.5%가 그렇다, 51.8%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90.3%가 친화도시의 조성에 찬성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81>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2.9	9.9	36.8	50.4	100(345)
	여자	1.9	4.7	40.2	53.2	100(361)
학교	초등학교	2.1	4.2	43.1	50.5	100(283)
	중학교	4.4	10.7	41.5	43.4	100(205)
	고등학교	0.9	7.8	29.8	61.5	100(218)
거주지역	동구	0.0	13.3	33.3	53.3	100(30)
	서구	1.6	7.1	66.1	25.2	100(127)
	남구	0.0	5.4	36.2	58.5	100(130)
	북구	3.4	6.8	35.7	54.1	100(207)
	광산구	3.8	8.0	26.9	61.3	100(212)
합계(실수)		2.4 (17)	7.2 (51)	38.5 (272)	51.8 (366)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3.3%가 그렇다, 38.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1.8%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90.3%보다 8.5%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82> 학부모가 인식하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26.3	52.6	15.8	100(19)
	여자	0.0	15.3	41.2	43.5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0.0	0.0	100.0	100(1)
	서구	0.0	12.5	37.5	50.0	100(32)
	남구	0.0	10.5	47.4	42.1	100(19)
	북구	0.0	7.1	35.7	57.1	100(14)
	광산구	2.6	28.9	50.0	18.4	100(38)
합계(실수)		1.0 (1)	17.3 (18)	43.3 (45)	38.5 (40)	100(104)

- 2)“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에 42.8%가 그렇다, 46.0%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8.8%가 조례 제정에 찬성하였다. 이에 대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찬성하고, 고등학생이 초등·중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83>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방자치 조례제정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2.3	13.6	41.7	42.3	100(345)
	여자	1.1	5.5	43.8	49.6	100(361)
학교	초등학교	1.1	10.6	47.0	41.3	100(283)
	중학교	2.4	10.7	45.4	41.5	100(205)
	고등학교	1.8	6.9	34.9	56.4	100(218)
거주 지역	동구	0.0	10.0	26.7	63.3	100(30)
	서구	0.0	11.8	64.6	23.6	100(127)
	남구	0.0	11.5	36.9	51.5	100(130)
	북구	2.9	7.2	45.4	44.4	100(207)
	광산구	2.8	9.0	33.0	55.2	100(212)
합계(실수)		1.7(12)	9.5(67)	42.8(302)	46.0(325)	100(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0.0%가 그렇다, 32.7%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2.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88.8%보다 6.1%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84> 학부모가 인식하는 지방자치 조례제정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26.3	57.9	10.5	100(19)
	여자	0.0	14.1	48.2	37.6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0.0	100.0	100(1)
	서구	0.0	9.4	40.6	50.0	100(32)
	남구	0.0	5.3	57.9	36.8	100(19)
	북구	0.0	14.3	57.1	28.6	100(14)
	광산구	2.6	28.9	52.6	15.8	100(38)
합계(실수)		1.0(1)	16.3(17)	50.0(52)	32.7(34)	100(104)

3)“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꿈의 공원」 활용공간으로 적절하다”에 39.2%가 그렇다, 44.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3.5%가 꿈의공원의 조성에 찬성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학교교급별, 거주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85> 청소년이 인식하는 서구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8	14.2	39.4	40.6	100(345)
	여자	1.9	11.1	39.1	47.9	100(361)
학교	초등학교	2.5	14.1	40.6	42.8	100(283)
	중학교	5.9	14.6	43.9	35.6	100(205)
	고등학교	3.7	8.7	33.0	54.6	100(218)
거주지역	동구	10.0	3.3	40.0	46.7	100(30)
	서구	0.8	21.3	54.3	23.6	100(127)
	남구	0.8	10.8	36.9	51.5	100(130)
	북구	6.3	11.6	35.7	46.4	100(207)
	광산구	4.2	10.8	34.9	50.0	100(212)
합계(실수)		3.8 (27)	12.6 (89)	39.2 (277)	44.3 (313)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3.3%가 그렇다, 38.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1.8%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90.3%보다 8.5%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86> 학부모가 인식하는 서구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21.1	63.2	10.5	100(19)
	여자	0.0	15.3	41.2	43.5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0.0	100.0	100(1)
	서구	0.0	12.5	31.3	56.3	100(32)
	남구	0.0	10.5	42.1	47.4	100(19)
	북구	0.0	7.1	57.1	35.7	100(14)
	광산구	2.6	26.3	55.3	15.8	100(38)
합계 (실수)		1.0 (1)	16.3 (17)	45.2 (47)	37.5 (39)	100 (104)

- 4)“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원당숲은 어린이·청소년 「모험놀이터」의 공간으로 적절하다”에 39.5%가 그렇다, 43.5%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3.0%가 모험놀이터 조성에 찬성하였다. 이에 대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찬성하고, 고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87> 청소년이 인식하는 원당 숲 어린이, 청소년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7.0	14.5	39.4	39.1	100(345)
	여자	2.2	10.5	39.6	47.6	100(361)
학교	초등학교	4.6	12.0	36.4	47.0	100(283)
	중학교	6.8	13.7	48.3	31.2	100(205)
	고등학교	2.3	11.9	35.3	50.5	100(218)
거주 지역	동구	13.3	6.7	43.3	36.7	100(30)
	서구	1.6	18.9	59.8	19.7	100(127)
	남구	0.8	16.2	33.8	49.2	100(130)
	북구	7.2	11.1	41.1	40.6	100(207)
	광산구	4.7	8.5	28.8	58.0	100(212)
합계 (실수)		4.5 (32)	12.5 (88)	39.5 (279)	43.5 (307)	100 (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54.8%가 그렇다, 26.0%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0.8%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83.0%보다 2.2%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88> 학부모가 인식하는 원당 숲 어린이, 청소년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26.3	57.9	10.5	100(19)
	여자	0.0	16.5	54.1	29.4	100(85)
거주지역	동구	0.0	0.0	0.0	100.0	100(1)
	서구	0.0	18.8	46.9	34.4	100(32)
	남구	0.0	5.3	68.4	26.3	100(19)
	북구	0.0	7.1	57.1	35.7	100(14)
	광산구	2.6	28.9	55.3	13.2	100(38)
합계(실수)		1.0(1)	18.3(19)	54.8(57)	26.0(27)	100(104)

5)“동 단위마다‘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에 41.8%가 그렇다, 47.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9.1%가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에 찬성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 차이는 별로 없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주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89>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3.5	10.1	45.2	41.2	100(345)
	여자	1.7	6.6	38.5	53.2	100(361)
학교	초등학교	2.5	6.4	45.6	45.6	100(283)
	중학교	3.4	11.2	42.4	42.9	100(205)
	고등학교	1.8	8.3	36.2	53.7	100(218)
거주 지역	동구	3.3	6.7	40.0	50.0	100(30)
	서구	1.6	7.9	54.3	36.2	100(127)
	남구	0.8	10.8	39.2	49.2	100(130)
	북구	4.3	7.2	46.4	42.0	100(207)
	광산구	2.4	8.5	31.6	57.5	100(212)
합계(실수)		2.5(18)	8.4(59)	41.8(295)	47.3(334)	100(706)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41.3%가 그렇다, 41.3%가 매우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82.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청소년의 89.1%보다 6.5%포인트 낮게 평가하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로는 광산구 주민이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90> 학부모가 인식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성별	남자	5.3	21.1	63.2	10.5	100(19)
	여자	0.0	15.3	36.5	48.2	100(85)
거주 지역	동구	0.0	0.0	0.0	100.0	100(1)
	서구	0.0	9.4	28.1	62.5	100(32)
	남구	0.0	10.5	42.1	47.4	100(19)
	북구	0.0	7.1	42.9	50.0	100(14)
	광산구	2.6	28.9	52.6	15.8	100(38)
합계(실수)		1.0(1)	16.3(17)	41.3(43)	41.3(43)	100(104)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시민사회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의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즉 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통합병원을 꿈의 공원으로 조성, 원당숲에 모험놀이터 조성, 각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등 5가지 지표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고(90.3%), 각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의 설립(89.1%), 조례 제정(88.8%), 꿈의 공원 조성(83.5%), 모험놀이터 조성(83.0%)에 찬성하였다.

<표-91> 청소년이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청소년친화도시	2.4	7.2	38.5	51.8	100.0
조례제정	1.7	9.5	42.8	46.0	100.0
통합병원 부지활용	3.8	12.6	39.2	44.3	100.0
원당숲 활용	4.5	12.5	39.5	43.5	100.0
청소년문화의집	2.5	8.4	41.8	47.3	100.0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의제 5가지 지표에 학부모들은 적극 찬성하였다. 친화도시의 조성에 대해서는 91.8%가 찬성을 하고, 조례 제정, 통합병원 부지에 꿈의 공원 조성, 각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립, 원당숲에 모험놀이터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과 학부모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므로, 통합병원 부지의 활용과 원당숲 활용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표-92> 학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단위:%, 수)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합계(실수)
청소년친화도시	1.0	17.3	43.3	38.5	100.0
조례제정	1.0	16.3	50.0	32.7	100.0
통합병원 부지활용	1.0	16.3	45.2	37.5	100.0
원당숲 활용	1.0	18.3	54.8	26.0	100.0
청소년문화의집	1.0	16.3	41.3	41.3	100.0

IV. 결론- 정책제언

IV. 결론- 정책제언

이 연구는 유엔이 정한‘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지는 광주광역시 소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어린이·청소년과 그 학부모를 조사하였다.

청소년용 설문지는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임의로 추출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706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또한, 일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제공하고 자기응답식으로 작성한 것을 104명에게 응답받았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청소년용은 성별, 연령, 학교, 학년, 거주지역; 학부모용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건강환경(5가지 지표), 안전과 보호환경(9가지 지표), 교육환경(7가지 지표), 놀이와 여가환경(7가지 지표), 사회참여와 정책(6가지 지표),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5가지 지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다. 설문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청소년 응답자 706명의 성별은 남자가 48.9%이고, 여자는 51.1%이다. 학교는 초등학교가 40.1%, 중학교가 29.0%, 고등학교가 30.9%이다. 거주지역은 동구가 4.3%, 서구가 18.0%, 남구가 18.4%, 북구가 29.3%, 광산구가 30.0%로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북구와 광산구에 사는 학생이 많고, 동구의 학생이 적은 편이다.

학부모 응답자 104명의 성별은 남자가 18.3%이고, 여자는 81.7%이다. 거주지역은 동구가 1.0%, 서구가 31.0%, 남구가 18.4%, 북구가 13.6%, 광산구가 36.9%로 인구가 광산구와 서구에 사는 학부모가 많고, 동구의 학부모가 적은 편이다.

2) 건강환경

지역사회의‘건강환경’에 대해 청소년은 응급조치는 77.9%가“받을 수 있는 곳이 가

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성교육과 상담(51.4%), 위험행동(51.7%), 정서·행동문제(52.1%), 유해매체 관련 교육과 상담(50.5%) 등은 절반 정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응급조치는 60.0%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성교육과 상담(41.3%), 위험행동(34.6%), 정서·행동문제(45.2%), 유해매체 관련 교육과 상담(37.5%) 등에 대해서는 절반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건강환경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이 응급조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하거나 시민홍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표-93> 청소년이 인식하는 건강환경

구분	청소년				학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급조치	3.3	18.8	53.7	24.2	3.0	37.0	44.0	16.0
성교육과 상담	10.2	38.3	41.8	9.6	15.4	43.9	34.6	6.7
위험행동	10.9	37.4	43.2	8.5	10.6	54.8	31.7	2.9
정서,행동문제	10.7	37.3	43.1	9.0	7.7	47.1	33.7	11.5
유해매체 관련	11.8	37.7	41.8	8.7	6.7	55.8	32.7	4.8

3) 안전과 보호 환경

지역사회의‘안전과 보호환경’에 대해 청소년의 80.6%가 대중교통을 안전하다고 인

식하고, 학교가는 길(71.6%), 성인용 광고로부터 안전(71.0%), 술 담배 본드로부터 안전(70.3%)하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38.5%에 불과했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성(41.2%)에 대해서도 평가가 낮았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정성(47.0%)과 각종편의시설의 안전성(62.5%)만 청소년에 비교하여 높게 평가하고, 나머지 모두 청소년보다 낮게 평가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한 항목은 자전거도로(32.6%), 야간조명시설의 안전성(36.9%), 성인용광고로부터 보호(45.6%) 등에 대해서 특히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안전한 등교와 귀가길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야간조명시설이 안전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표-94> 청소년이 인식하는 안전과 보호환경

구분	청소년				학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쓰레기,유해물질	7.1	36.5	46.0	10.5	1.9	49.5	45.6	2.9
공중화장실	17.8	43.6	32.0	6.5	2.9	50.0	43.1	3.9
각종편의시설	6.7	32.6	46.8	13.9	3.8	33.7	54.8	7.7
대중교통	3.5	15.9	60.3	20.3	6.7	31.7	54.8	6.7
학교가는 길	4.7	23.7	49.3	22.3	4.8	31.7	57.7	5.8
자전거도로	21.0	37.8	32.5	8.7	15.4	51.9	28.8	3.8
야간조명시설	10.9	35.5	41.6	12.1	5.3	57.9	31.6	5.3
성인용 광고	8.7	20.3	42.3	28.7	9.7	44.7	41.7	3.9
술,담배,본드	8.9	20.8	36.7	33.6	1.9	39.8	49.5	8.7

4) 교육환경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해 청소년은 도서관이용(77.8%)과 방과후 학교시설의 이

용(67.1%)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직업체험(39.1%), 교육자원의 활용(47.5%), 예술단체와의 연계(48.4%)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보다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는 도서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만 49.1%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직업체험의 다양성(30.4%), 방과후 학교시설의 이용(35.6%), 예술단체와 연계(37.5%), 놀이활동 공간(38.5%)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직업체험의 다양성, 예술단체와의 연계, 교육자원의 활용에 좀더 역점을 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95>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육환경

구분	청소년				학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업체험	15.9	45.0	30.5	8.6	12.7	56.9	24.5	5.9
방과후교육	13.2	31.9	43.8	11.1	5.8	51.9	32.7	9.6
방과후학교시설	9.8	23.1	49.4	17.7	1.9	62.5	30.8	4.8
놀이활동,공연	11.5	33.8	42.6	12.2	4.8	56.7	33.7	4.8
예술단체 연계	11.3	40.3	39.9	8.5	3.8	58.7	30.8	6.7
교육자원	13.9	38.6	36.6	10.8	5.8	53.8	33.7	6.7
도서관이용	6.1	18.2	47.7	28.1	5.8	45.2	38.5	10.6

5) 놀이와 여가환경

지역사회의 '놀이와 여가환경'에 대해 청소년은 다양한 교류(63.7%), 놀이시설(60.0%),

놀이장소(51.6%)에 대해서만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학부모는 자연속 다양한 놀이에 대해서만 청소년보다 조금 높게 평가하고, 모든 항목에서 청소년보다 낮게 평가하고 특히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컸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놀이와 여가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항을 참고하여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96> 청소년이 인식하는 놀이와 여가환경

구분	청소년				학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기계발,취미	12.0	37.8	40.8	9.3	5.8	60.6	27.9	5.8
공연장소 대여	14.4	40.2	36.4	8.9	5.8	54.8	33.7	5.8
수련활동	12.1	40.4	38.2	9.4	8.7	52.4	35.0	3.9
놀이시설	10.9	29.1	43.7	16.3	8.7	44.2	43.3	3.8
놀이장소	15.2	33.2	38.4	13.2	9.7	43.7	37.9	8.7
자연속 놀이	16.2	37.9	36.0	9.9	6.7	44.2	41.3	7.7
다양한 교류	10.1	26.2	47.5	16.2	3.9	40.8	40.8	14.6

6) 사회참여와 정책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사회참여와 정책’을 보면,“공공기관은 어린이·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에 대해서만 65.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여(33.5%)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33.0%) 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단체장의 관심(66.0%), 무차별 친절(59.2%), 청소년의 인터넷참여(54.4%), 자원봉사활동(53.8%) 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지만, 학부모도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그들의 필요와 견해가 도시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해야 하고, 지자체장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윤장현시장이 공약한 청소년만민공동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축제나 행사,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표-97>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참여와 정책

구분	청소년				학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축제	17.5	49.0	28.0	5.5	3.8	48.1	44.2	3.8
자원봉사	19.2	47.9	26.0	7.0	1.9	44.2	50.0	3.8
정보정책	14.7	44.2	36.1	5.0	4.8	55.8	35.6	3.8
인터넷활용	12.2	38.0	40.7	9.1	2.9	42.7	50.5	3.9
단체장 관심	12.0	42.6	38.0	7.4	7.8	26.2	42.7	23.3
무차별 친절	9.2	25.4	53.7	11.8	-	40.8	35.9	23.3

7)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시민사회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의제에 대해 청소년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고(90.3%), 각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의 설립(89.1%), 조례 제정(88.8%), 꿈의 공원 조성(83.5%), 모험놀이터 조성(83.0%)에 찬성하였다.

학부모들은 친화도시의 조성에 대해서는 91.8%가 찬성을 하고, 조례 제정, 통합병원 부지에 꿈의 공원 조성, 각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립, 원당숲에 모험놀이터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과 학부모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므로, 윤장현시장이 공약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인증 및 이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및 청소년카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난 해 이슈가 되었던 국군통합병원 부지의 활용과 원당숲 활용에 대해서는 5.18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표-98> 청소년이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단위:%, 수)

구분	청소년				학부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친화도시	2.4	7.2	38.5	51.8	1.0	17.3	43.3	38.5
조례제정	1.7	9.5	42.8	46.0	1.0	16.3	50.0	32.7
통합병원 부지활용	3.8	12.6	39.2	44.3	1.0	16.3	45.2	37.5
원당숲 활용	4.5	12.5	39.5	43.5	1.0	18.3	54.8	26.0
청소년문화의집	2.5	8.4	41.8	47.3	1.0	16.3	41.3	41.3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는 시장후보에게 ‘어린이 · 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를 제안하였고,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제안한 ‘12대 정책의제’ 중의 하나인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에 대해 윤장현 후보도 적극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제 남은 일은 민관이 협력하여 어린이 · 청소년 친화도시를 구현시키는 것이다.

부록. 설문지

ID : (기재하지 마세요)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환경 실태 및 욕구조사
(아동·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는 어린이·청소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 응답한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연구책임자 : 이 용 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의 062-234-0755

I.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해당사항에 '✓' 표시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만()세
학교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거주지역	① 동구 ② 서구 ③ 남구 ④ 북구 ⑤ 광산구

II. 건강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험행동 예방(흡연, 약물, 음주 등)의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서 행동문제(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자살 등)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유해매체관련 중독을 예방(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III. 안전과 보호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보호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악취, 공기오염, 소음 등 건강을 해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안전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공공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 어린이·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 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구조물(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집 주변에 성인용 광고 전단지, 길거리에 널려 있지 않으며 간판에 야한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술, 담배, 본드, 가스 등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IV. 교육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 하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방과후 학교시설이 (운동장 체 육관 강당 등) 어린아·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 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놀이활동·공연 참여 활동을 어 린아·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아·청소년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경찰 소방서 병원 교통공단 예술단체 회사 등)와 연계된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교육을 위한 자원(책 학습CD, 교복 등)을 빌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V. 놀이와 여가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와 여가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2.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이 문화예술 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 준다.				
3.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4.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놀이 공간(놀이터, 공원 등)이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놀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5.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놀이터나 공원 이외에도 집 근처의 다른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6.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무, 식물, 꽃, 호수 등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7.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VI. 사회 참여와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참여와 정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눈]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에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눈]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어린이·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구청,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어린이·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VII.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역환경 의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역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3)꿈의 공원」 활용공간으로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4.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원당숲은 어린이·청소년 「4)모험 놀이터」의 공간으로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5. 동 단위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꿈의 공원]은 일 가와사키 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거점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꿈의 공원은 '어린이·청소년회의', '모험놀이터', '자유공간'이라는 3가지 중심 요소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4) [모험놀이터]는 나무·줄·흙·물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마음껏 체력단련과 친화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ID : (기재하지 마세요)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환경 실태 및 욕구조사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는 어린이·청소년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 응답한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연구책임자 : 이 용 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의 062-234-0755

I.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해당사항에 '✓' 표시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만()세				
거주지역	① 동구	② 서구	③ 남구	④ 북구	⑤ 광산구

II. 건강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급할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위험행동 예방(흡연, 약물, 음주 등의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문제(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자살 등)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유해매체관련 중독을 예방(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내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Ⅲ. 안전과 보호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보호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악취, 공기오염 소음 등 건강을 해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안전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공공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 어린이·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 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구조물(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며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집 주변에 성인용 광고 전단지가 길거리에 널려 있지 않으며 간판에 야한 그림과 문구가 그려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술, 담배, 본드, 가스 등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IV. 교육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직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방과후 학교시설이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놀이활동·공연 참여 활동을 어린이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경찰, 소방서, 병원, 교통공단, 예술단체, 회사 등)와 연계된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교육을 위한 자원(책, 학습 CD, 교복 등)을 빌리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V. 놀이와 여가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와 여가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기 계발과 취미생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2.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이 문화 예술 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 준다.				
3.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4.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놀이 공간(놀이터 공원 등)이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놀이를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5.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놀이터나 공원 이외에도 집 근처의 다른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6.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무 식물 꽃 호수 등 자연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7.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친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VI. 사회 참여와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참여와 정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에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 혹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나는]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은 어린아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구청,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은 어린아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VII.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역환경 의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역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 년의 정책의 이행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청소년들이 자유 롭게 쉬고 놀 수 있는 「5)꿈의 공원」 활용공간으로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4.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원당숲은 어린이·청소년 「6) 모험놀이터」의 공간으로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5. 동 단위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씩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꿈의 공원]은 일본 가와사키 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거점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꿈의
공원은 '어린이·청소년회의', '모험놀이터', '자유공간'이라는 3가지 중심 요소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6) [모험놀이터]는 나무·줄·흙·물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마음껏 체력단련과 친화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